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김재원 “앞으로 재미와 깊이가 더해질 것”

MBC ‘스캔들’ 출생비밀 끝, 본격 스캔들 2막 스타트

“아버가 되는 건 결혼과 또 다른 것 같아요. ‘아이에게 훌륭한 아버가 돼야지, ‘쪽팔린’ 아버는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니 연기와 연기자의 길에 대해 신중해지네요.”
MBC 주말극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극본 배유미, 연출 김진민)에서 주인공 하은중 역할을 맡아 열연하는 배우 김재원(사진)이 작품의 남은 절반의 여정을 앞두고 밝힌 각오다.
최근 열린 ‘스캔들’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원은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얻는 게 있는 것 같다.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니 생각도 깊어지고 책임감도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드라마 방송 직전인 지난 6월 임시 중이던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김재원, 조재현 주연의 ‘스캔들’은 복수로 얽힌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그린다.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사실을 유괴한 유괴범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설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제 딱 절반인 18화까지 방송된 작품은 앞으로 출생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 은중이 자신을 키워준 가족과 핏줄로 이어진 가족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본격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드라마에서 중심 역할을 맡은 김재원, 조윤희, 김규리, 기태영이 참석했다.
김재원은 “지금까지는 드라마 내용의 주변부를 몰랐다면, 앞으로는 사건의 중심으로 내용이 옮겨간다는 몰입도나 연기적인 측면에서 깊이와 재미가 더해질 것 같다”고 자

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어 “별로 부분도 점찍 부각될 것이고, 아버지 세대의 치열한 다툼이 아들 세대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중장년 여성분들께서 특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김재원과 멜로를 맡을 우아미 역의 조윤희도 “지금까지 드라마가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지만 멜로가 시작하면서 어둠과 밝음의 조화가 어우러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젊은 배우들이 전면에 나서지만 실상 ‘스캔들’은 많은 베테랑 연기와 배우들이 극의 중심을 잡고 있다. 조재현, 박상민, 신은경 등이 바로 그들이다. 선배에 대한 평을 요청하자 김재원과 김규리가 모두 찬사를 늘어놓기 바쁘다.
“선배님들 몰입도가 너무 대단해요. 특히 박상민 선배는 너무 몰입하세요. 모든 배우들이 박상민 선배에게 극 중에서 맞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있어요(웃음). 신은경 선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자 알라치노’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조재현 선배는 정말 항상 유머러스하고 재미있어요.”(김재원)
하은중의 친아버지 장태하의 딸 장주하로 분해 배다른 남편 은중과 잠시 이혼될 수 없는 ‘러브라이프’를 그렸던 김규리도 “활영하면서 선배님들이 옆에 계셔서 너무 좋은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 치열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고 찬사를 퍼냈다.
동시간대 1위로 출발한 ‘스캔들’은 시청자의 호평과 달리 시청률은 다소 정체됐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아직 기대한 만큼의 폭발



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김재원은 “물론 시청률을 배제하고 찍을 수는 없다. 하지만 희안하게 이 작품은 시청률에 많은 중점을 두는 분위기는 아니다. 모든 스태프가 정말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 어보자는 의지로 모였단다”고 강조했다.
“스캔들”만 봐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게요. 저도 ‘개그콘서트’ 좋아해요(웃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스태프와 배우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시청률이니까 앞으로 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김재원)
(연합뉴스)

우리 결혼했어요~

이효리·이상순 제주 별장서 조출한 예식

가수 이효리(34)가 1일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연인인 기타리스트 이상순(39)과 결혼했다.
이효리는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지은 별장의 넓은 정원에서 양가 가족들과 지인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예식을 치렀다.
현장에 있던 이효리의 소속사 비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주례가 없는 등 일반 반찬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예식이었다”며 “양가 가족의 상견례를 겸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축하 속에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고 전했다.
철물 보관소에서 진행한 이날 예식에서 이효리는 들쭉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쓰고 민소매 드레스를, 이상순은 하늘색 예복을 입고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온스타일 프로그램 ‘이효리의 X엔니’의 한 장면 속 이상순(왼쪽)과 이효리.
알려졌다.
지인들이 부부의 앞날을 위해 여러 곡의 축하를 선사하기도 했다. 예식이 끝난 뒤 오후 5시부터는 결혼 뒤술회를 겸한 파티가 열렸다.
장필순 등 제주에 터를 잡고 사는 친한 뮤지션들을 비롯해 이효리의 소속사 직원들, 이효리의 앨범 프로듀서를 맡은 김지웅, 이효리와 절친인 디자이너 요니, 이상순의 전

소속사 관계자 등 두 사람의 지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어송라이터 정재형의 소개로 만난 이효리와 이상순은 지난 2011년 8월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노래를 함께 작업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 8월 27일에는 이효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상순에게 프러포즈를 받은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detail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12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TV 하이라이트

아들에게 집착하는 엄마



달라졌어요(EBS 밤 10시45분) = ‘다가가는 엄마, 밀어내는 아들’. 19살 어린 나이에 선택한 결혼. 하지만 15살 연상의 남편에게 선 기대했던,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다. 남편에게 느끼지 못한 애정을 하나 뿐인 아들에게 쏟아부은 엄마.
하지만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아들이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엄마의 첫 번째 꿈은 깨지고 말았다.
실상가상,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된 엄마. 남편에 대한 답답함은 점점 커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않는 아들도 불만스럽다.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방식까지 아들에 대한 엄마의 애착은 매사 간섭으로 이어지고, 아들의 엄마의 이런 집착이 지극지극 하기만 하다.

위험한 밤상: 고등어 바른 섭취법



위기탈출 넘버원(KBS2 오후 8시55분) = 머느리 유채영씨 집을 방문한 시어머니 문영미씨와 시누이 성희씨는 잘못된 고등어 섭취법으로 인해 온몸에 피부발진,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진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고등어의 잘못된 섭취법은 무엇이였을까.
개그맨 김현철씨,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다. 그런데, 등산도중 독사를 만난 현철씨는 ‘이 행동’ 때문에 독사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다는데,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
동생을 본 이후 학습지하가 심각한 지우, 워킹맘 엄마를 둔 발육부진이 심각한 윤정이, 폭식증으로 소아비만이 심각한 등등이외의 동화를 존현이. 이중 분리불안장애로 성장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는 누구일까.

의정부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시35분)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무지개지역아동센터는 13년 동안 한 곳에서 운영되어 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곳에 다닌 아이들은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됐다.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를 친형제자매처럼 챙기고 보듬어 주는 아이들.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은 어린 동생들의 학습지도를 봐주며 선생님이 되어 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화목한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센터의 환경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오래되고 낡은 창문 사이로, 단열도 잘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SBS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시설 개보수에 나섰다.